

농어민 10명 중 4명 “농어업 미래 비관적”

10년 후 미래전망, 농업인 41%·어업인 46%가 부정적 전망 서삼석 의원 ‘농어업 의견조사’ 공개…문화체육·의료 불만 높아

농민과 어민 열 명 중 네 명은 한국 농어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농어업인들이 ‘한국 농어업이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27일 공개한 ‘2020년 농·어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58.4%, 어업인의 62.8%가 농업과 어업이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각 47.0%, 43.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0년 후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41.0%, 어업인의 46.2%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아 23.1%, 17.7%에 그친 희망적 전망을 크게 앞섰다.

도시와 비교한 생활수준에서는 농업인의 72.8%, 어업인의 51.6%가 낮다고 보았으며 특히 문화체육과 보건으로 분야에서 불만 비중이 높았다. 위 두 개 영역에 대한 불만비중은 농업인이 각각 49.1%, 48.6% 어업인이 42.8%, 42.1%에 달했다. 반면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인 61.7%, 어업인 55.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정부 농어업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농업인의 44.0% 어

업인의 41.0%가 불만이라고 답해 각각 13.2%와 13.7%에 그친 만족의견을 앞섰다. 향후 중점추진할 농어업정책으로는 공히 기본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농업인의 58.0%, 42.5%와 어업인의 54.2%와 32.4%의 지지를 받았다.

농어업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농어민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5점 환산점수로 농업인은 각각 4.10점, 3.97점, 어업인은 4.40점, 4.14점으로 중요하게 평가했다.

농업발전을 위한 기관별 노력 정도에서도 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농업인 평가에서는 각각 3.87점과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업인들은

협동조합을 4.27점, 어민단체를 3.53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도농간의 격차와 열악한 문화체육, 보건으로 여건등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농어업인 의견조사는 서삼석 의원의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 BRIDGE에 의뢰하여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농업인 1201명, 어업인 11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공히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포인트, ±3.0%포인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평동산단에 제2호 생활형 자전거도로 조성

‘현장 경청의 날’ 행사

광주 평동산단에 제2호 생활형 자전거도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27일 광주 도시철도 평동역 1층 예술 무대에서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열었다. 기존 노후 자전거 도로를 개선해 상무지구 이어 두 번째로 평동산단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평동산단은 1993년 조성돼 634개 업체에서 1만 3800여명이 근무한다.

도로 양면 주차 차량 탓에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됐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보면 도로에

서는 자동차, 인도에서는 보행자 눈치를 보게 된다”, “표시는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자전거 도로나 통행 방해 시설도 많다”고 호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평동산단 일대를 생활형 자전거 도로 시범 구간으로 조성하면 송정역, 황룡강 자전거 도로와 평동역의 지하철이 연계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시민 권익위와 관계 부서 등과 검토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월전공원에서 평동역까지 이동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위기가구 생계지원 기준 완화

신청기간 다음달 6일까지 연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위기가구에 지원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의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 감소된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신고서 없이 신청가능,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본인신고서 인정) 등이다.

전남도도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가구도 포함됐다. 또 신청대상도 완화돼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했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 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재산기준(시 지역 3억5000만원, 군 지역 3억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가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의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 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다음달 4일

AI클러스터 포럼 연다

광주시는 “11월4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에서 ‘제2회 대한민국 AI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와 대한민국 AI클러스터 포럼이 주최하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개최식, 기조연설, 전문세션 및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역할과 미래’를 세션 주제로 스테판 쿠에스터(Stephan Kuester) 영국 런던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및 테크네이션(Tech Nation) 인터내셔널 컨설팅 총괄과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전문세션에서는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의 ‘광주가 그리는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미래’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의 ‘라이더, 레이더 인공지능까지 미래형 자동차 전망’ ▲김동민 (주)에이엘에이 대표의 ‘의료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임지섭 크로커스에너지 대표의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패널토론에서는 송세경 카이스트 교수,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미래전략센터 연구위원, 장동인 AIBB LAB 대표, 황병선 박병엔젤스(주) 대표,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랜선으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27일 광주 북구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금융발전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문인 북구청장이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랜선으로 기념식을 참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무등산 일대 난개발 대책 마련하라”

신양파크호텔 자리·산수동 일대

광주시의회에서 무등산 일대 난개발을 막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2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이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난개발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축 절차가 진행 중이

다”며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 행위와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호텔에서 지능이 더는 필요 없다면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등산 아래 산수동 산67-1번지 일원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을 냈는데, 이 일대는 산림이 울창해 건축이 어려워 지자 임목도를 맞추기 위해 수년간 나무를 고사시킨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태동 산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민간공원 개발사업 또한 기득권층과 건설 자본에 의해 높이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자연 생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를 14일간의 회기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 및 교육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졌고, 조례안 28건, 동안 42건, 건의안 1건, 보고안 9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그린카진흥원에 김덕모 선임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의 최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제5대 원장으로 현대자동차 출신을 선임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린카진흥원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덕모(68·사진) 세양이엔지 고문을 원장으로 선임·의결했다. 신원 조희,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초 진흥원이 최종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현대차에서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공장 사무이사, 기획조정실 전무이사, 홍보 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자동차 부품 기업인 성장오토텍 부회장 등을 지냈다. 광주시 출연 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은 광주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기업 지원 기관이다. 광주시를 대리해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483억원을 투자한 1대 주주다.

김덕모 내정자는 “지역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GGM 친환경 차 전환과 위탁 생산 수주 다변화를 적기에 실현하고 지역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